

항공영화

스릴 넘치는 전투조종사들의 실전 훈련



『작전명! 레드플랙』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편집실 |



시놉시스

『작전명! 레드플랙』은 미 공군 조종사 존 오터 스트래튼(John “Otter” Stratton) 대위의 눈을 통해 미 공군 조종사들의 이면과 한 순간의 실수도 용서치 않는 고난도의 비행 등 파일럿의 삶과 훈련과정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 작품. 존 오터 스트래튼 대위는 F-15C 전투기를 조종하는 젊고 유능한 미 공군 엘리트 전투기 조종사다. 여덟 살이 되던 해 그는 자신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한다.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 활약하면서 수많은 무공훈장의 주인공이자 영웅이 된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것이다.

연합군 공군 훈련비행 프로그램인 레드플랙에서 존을 포함한 수백 명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임무수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웅심을 불어넣어 주는 전투조종사. 하지만 존은 어린 시절의 영웅심만을 좇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수많은 희생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현실 속의 영웅은 바로 전투기 조종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위에서 항상 도움을 주는 사람들에 의해서다. 이제 존은 레드플랙 훈련을 통해 어릴 적 꿈과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실제 훈련을 영화화

영화의 배경이자 제목이기도 한 ‘레드플랙’은 미국을 비롯해 27개 연합국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군 전투훈련 프로그램이다. ‘레드플랙’의 임무는 공중과 지상의 갖가지 위협 속에서 참가대원들에게 전투준비, 전투능력, 그리고 생존능력을 극대화시키고 대원들의 공중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며, 실전에 투입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훈련이다.

영화는 ‘레드플랙’의 사실감 넘치는 군사작전과 시속 600마일

미국 네바다의 드넓은 창공을 배경으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애환과 실제 훈련과정을 아이맥스 초대형 화면에 담아낸 영화 『작전명! 레드플랙(원제: Fighter Pilot, Operation Red Flag)』이 지난 2006년 1월 21일 63빌딩 아이맥스 영화관에서 개봉됐다.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는 128대의 화려한 전투 편대, 현기증이 날 정도의 아찔한 급상승 비행 등을 보여주며 전투조종사의 스티븐 넘치는 세계로 빠져들게 만든다. 특히 영화 「작전명! 레드플랙」은 아이맥스 특유의 체험 영상을 살려 짜릿한 비행 장면을 연출한다. 전투기에서의 직접 촬영으로 얻어 낸 항공 장면들은 비행의 속도감과 수직적인 자연 풍광이 어울려 마치 전투기를 직접 타고 하늘을 날고 있는 듯한 영상체험의 묘미를 전달한다.

다양한 최신에 전투기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 영화의 또 다른 재미. 미국 F-15 이글 전투기를 비롯해 이스라엘의 F-16, 독일의 토네이도, 캐나다의 F/A-18 호넷, 영국 해리어 등 현재 세계 각국의 공군 및 해군이 운용 중인 주력기종들이 영화의 핵심 소재로 등장, 에어쇼를 능가하는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 영화에서는 전투조종사들의 훈련모습뿐만 아니라 다음날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밤새워 엔진정비에 나서는 정비사들의 숨은 열정, 조종사의 목숨을 앗아가 버릴지도 모르는 작은 오염원들을 찾아 활주로와 비행기를 수색하는 요원들의 집요한 추적, 폭발 직후 비행기의 화염 속으로 뛰어들어 동료의 목숨을 구하는 구조팀들의 감춰진 모습 등 비행기와 함께 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이 흥미롭게 그려진다.

‘스토펠 로우’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작전명! 레드플랙」은 지난해 미국 L.A에서 개최되는 대형필름 영화제인 LFCA(Large Format Cinema Association) 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⑤



■ 레드플랙훈련(Operation Red Flag)

레드플랙훈련은 미 네바다주 넬리스 공군기지에서 분기별로 열리는 실전적 공중전 훈련으로 미군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 및 기타 미국 우방국들이 참가하고 있는 대규모 연합훈련이다.

베트남전 당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미군 조종사들의 전투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1975년부터 실시된 레드플랙훈련은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조종사들의 전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레드플랙훈련은 기본적으로 가상 적인 레드팀과 연합군 전력인 블루팀이 서로 공중전을 벌이는 훈련과 가상 적 시설 및 지상장비에 대한 공대지 공격훈련 등이 실시된다. 특히 공중전 훈련에서 가상 적기를 조종하는 전투조종사들은 미 공군에서도 최정에 조종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상 적국의 전술 교리에 따라 비행을 하기 때문에 연합군 전력인 블루팀은 상당히 실전적이고 효과적인 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한편 60×100마일 면적을 자랑하는 넬리스 사격훈련장은 스위스 국토면적과 맞먹는 규모로 실전적인 대규모 공중전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공대지 공격훈련을 위해 가상적국의 실물장비 등도 설치되어 있어 실제 폭탄을 투하하는 실전적 훈련도 실시된다.

